

투데이 칼럼

북한의 평등 교육 문제

북한은 무상교육을 통해 주민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특히 도시와 지방 간 교육 격차는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일선 교사들의 희생에 기대고 있다. 지난달 사법대를 갓 졸업한 평안남도의 새내기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산골학교 전출을 자원한 교사들로, 이들의 선택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같은 시기, 북한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섬마을이나 최전방 학교로 자원하는 만큼 교사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심과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교사들의 자발적 지원 소식을 뉴스로 선전해야 할 만큼 지방 학교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다. 실제로 농촌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 운동장에 들어갈 때 밤새부터 다르다. 농촌 학교 교원의 질이 떨어지고 교육 수준이 많이 떨어지거나 보니까 농촌 지역, 현지, 섬, 분교 등으로 탄원(자원)을 했다는

것을 자주 본보기로 내세워야 한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경제난을 겪으며 북한의 무상교육 제도는 큰 타격을 입었다. 형식적으로는 ‘무상’의 기조를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교사 부족과 교재 미비, 기초 시설 붕괴 등으로 교육의 질은 갈수록 낮아졌다. 평양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복구와 지원, 지방에 맡겨진 ‘자체 해결’ 방식이 더해져 교육 격차는 더욱 뚜렷해졌다. 북한은 오랜 기간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국 어디서나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선전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교육 격차 문제가 자주 언급되는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도시와 지방 간 교육 불균형 문제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격차의 원인을 주로 교사의 능력 부족으로 돌리는 경향이 크다. 해결책 역시 북한 최고의 사법대학 졸업생이 시골 학교로 내려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 진출도 선전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발적 자원’이라는 표면적 선전과 달리 실제로는 강제성이 짙고, 생활 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의 배치를 기피하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북한에서는 교사들의 월급이 턱없이 부족해 생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과외활동이나 뇌물에 의존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시골 지역의 경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생활이 훨씬 더 팍팍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교사들은 뇌물을 주고 출근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북한 당국은 시골 학교 교사들의 생활 여건을 챙기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만으로는 도시와 지방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개별 교사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자원 불균형과 인프라 격차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경제 발전과 같이 가는 개념이다. 경제가 낙후된 지역은 교육도 낙후될 수밖에 없고 경제가 발전된 지역은 교육도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국가 예산이 없고 국가가 못 살기 때문에 돈이 없다 보니 농촌에 교육 시스템을 복구하고 도농 간 교육 격차를 줄여가는 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스스로도 교육 격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사들의 ‘사명의식’과 ‘자발적 지원’을 주된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

정복규
논설위원

독자재언

최근 자영업자를 노리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순히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정교한 사기 수법으로 금전적 피해까지 유발하는 범죄다. 피해는 주로 음식점, 숙박업소, 소매점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 사기 수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뤄진다. 첫 단계는 단체 예약을 가장한 접근이다. 사기범은 특정한 단체나 직위를 사칭하며 여러 명이 참석하는 예약을 요청한 뒤,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 있다며 판매처의 연락처를 제공한다. 이후 자영업자가 해당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면, 또 다른 사기범이 신분증을 증명하는 문서나 명함 등을 제시하며 물품 대금을 요구한다. 피해자가 이를 믿고 송금하면

한 통의 전화, 노쇼 사기 막는 상식의 힘

곧바로 연락이 끊기고 예약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방식은 사전에 경계하지 않으면 누구든 속을 수 있다. 실제로 전주시의 한 음식점 주인은 단체 예약 요청에 의심을 품고 직접 정치인 사무실에 확인 전화를 걸어 사기임을 알아차렸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단순한 전화 한 통이 수백만 원의 손실을 막아낸 사례다. 이러한 ‘노쇼 사기’는 단순한 불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약 준비를 위한 식재료나 인력 확보 등에서 생기는 손해에 더해 수백만 원의 대리구매 금액까지 피해를 이어진다. 예약 자체가 거짓이며, 이중 사기 구조가 특징이

다. 이 같은 사기는 주로 해외에 있는 불법 콜센터 조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들이 건네받는 명함, 공문, 사업자등록증 등은 정교하게 위조된 문서로, 진위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실제 정치인이나 기관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속는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사전 차단이다.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체 예약 시 상대방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다면 반드시 예약자의 사무실에 직접 전화해 예

약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예약이 비대면으로 이뤄질 경우, 모든 정보가 허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짜 명함, 가짜 공문, 가짜 직원이 신분을 위장한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의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하고, 발생한 피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수법의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노쇼 사기’는 예약을 받고 준비하는 성실한 자영업자의 신뢰를 악용한 범죄다. 예방을 위한 경각심과 대응을 생활화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주연 교창경찰서 해리파출소경사

사설

제34회 전북특별자치도 게이트볼대회

제34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지난 5월 21일 전주시 덕진구 송전동 소재 전주시국민생활체육회 이트볼 전용구장에서 열렸다. 도내에서 열리는 게이트볼대회 입상자는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이번 대회 참가 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에 등록된 회원이다. 도내 14개 시·군별 대회를 거쳐 선발되어 각 시·군지회장이 추천한 선수이다. 입상팀은 남자부 우승 무주군지회, 준우승 부안군지회, 공동 3위 남원시·고창군지회, 여자부 우승 전주시지회, 준우승 정읍시지회, 공동3위 진안군·고창군지회다. 무주군지회 남자팀과 전주시지회 여자팀이 치열한 경쟁을 뽐내고 영광의 우승기를 들었다. 입상자 상금으로 남·여 우승팀에 각 20만원, 남·여 준우

승팀에 각 15만원, 남·여 공동 3위 각 2팀에 각각 10만원의 상품권이 주어졌다. 특전으로 남 1·2위, 여 1·2위팀에게는 오는 6월 10일 충남 홍성에서 열리는 제23회 대통령기 전국게이트볼대회 참가권이 주어졌다. 그리고 남 3위, 여 3위 팀에게는 10월경에 열릴 예정인 제12회 전국노인 건강 대축제(장소 미정)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선수로 참가권이 주어졌다. 한편 행사에는 김두봉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 성이순 전북특별자치도 교령친화정책과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감, 김영구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지문위원장, 시·군지회장 14명, 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 임원,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게이트볼협회 관계자, 시·군지회 선수단 200여 명 등 모두 30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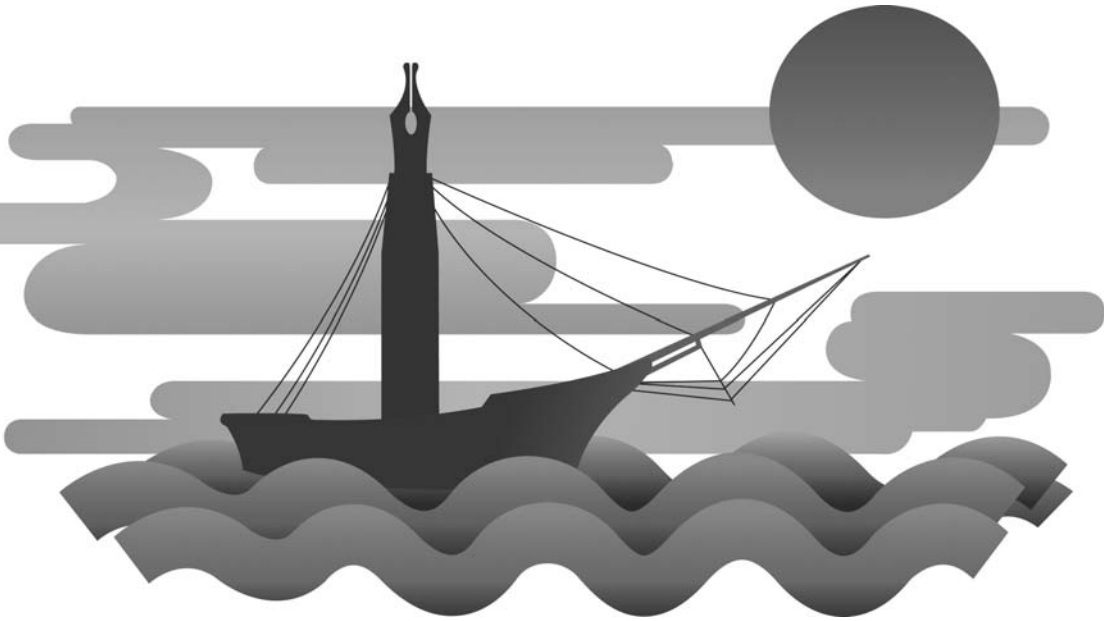
이강원 개인전 ‘주름의 미학(美學)’

화가 이강원의 개인전 〈주름의 미학(美學)〉이 5월 9일부터 2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기스라실에서 열렸다. 화가는 재료의 물성과 빛의 반사를 통한 명암과 조형의 새로운 언어를 탐구했다. 그렇게 완성에 이른 작품이 연작 주름이다. 그의 작품은 물성에 따른 구김과 매듭, 당김과 묶음의 조형적 이미지가 나타나있다. 하지만 단순히 주름에 담긴 조형적 언어만이 표현된 것은 아니다. 화가는 인간의 삶과 결부된 이야기를 작품을 통해 풀어냈다. 어느 시인은 연작 주름에 대해 ‘태초에 무국’ ‘공활한 우주로 빚대며 신비한 작품들에 대해 감탄했다. 시인은 “작품들은 빛이 생겨나니 어둠도 따라오고 태극, 창조의 신이 눈을 떴다”며 “하늘과 땅 사이에서 바람이 흐르고, 기운이 흐르고 비로소 황국, 경영의 신이 붓을 들었다”고 해석했

다. 화가는 주름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삶을 보게 됐다고 말한다. 오랜 시간 주름에 천착하며 내면의 조형언어를 탐구해 온 작품들은 ‘주름의 미학’이라는 타이틀로 만날 수 있었다. 1977년 원광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화가는 개인전 21회 그룹 및 기획·초대전 300여회 넘게 참여했다. 뉴욕·서울·파리·대구·전주에서 주요 개인전 21회, 칠인전, 단소와 예술: 유기적 집합, 전북미술모더니티 역사전 등에 출품했다. 2009년부터 10년간 전북미술원로작가회 전시 운영위원장, 2019년~2021년까지 한국미협전북도지회 고문, 2020년~2022년 전북도립미술관 작품수집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북미술대전 초대작가, 전그룹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